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심포지엄

동아시아 종교와 노년

1. 일시: **2020년 11월 21일(토)** 오후 1시
2. 장소: 호암교수회관 툐립실

- 주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주최: '동아시아 종교의 노년 담론 및 실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팀 · 종교문화비평학회
-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하반기 심포지엄은 행사 관계자만 참여하는 형식으로 개최 됩니다.
이번 학술 행사에 많은 분을 초대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오며, 이 점 양해 바랍니다.

3. 발표순서

13:00~13:05 개회 및 개회사

개회사 : 이진구(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사회: 민순의(한국종교문화연구소)

13:05~13:40 제1발표

중국 고대 노인의 정체성과 권위에 관한 연구

발표: 임현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논평: 심일종 (서울대학교)

13:40-14:15 제2발표

구장(鳩杖): 노인에게 전하는 황제의 권위 : 한대 왕장(王杖) 제도에 반영된 '노년' 이해

발표: 이연승 (서울대학교)

논평: 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

14:15-14:50 제3발표

'동아시아 기로 이야기의 변형: 노년 혐오요소를 중심으로

발표: Sem Vermeersch (서울대학교)

논평: 이해숙 (불교아카데미)

14:50-15:00

중간휴식

15:00-15:35 제4발표

‘노화’와 ‘장생’을 바라보는 도교적 시선(視線)의 복합성과 그 함의

발표: 최수빈 (서강대학교)

논평: 이봉호 (경기대학교)

15:35-16:10 제5발표

노년의 몸과 유교적 성찰

발표: 임부연 (서울대학교)

논평: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6:10-16:45 제6발표

정체(政體)와 인체(人體)의 늙음: 1880년-1940년의 한국 노년

발표: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논평: 김윤성 (한신대학교)

16:45-16:55

휴식 (장내정리)

16:55-17:55

종합토론

사회: 김호덕(한국종교문화연구소)

<<발표요지>>

1. 중국 고대 노인의 정체성과 권위에 관한 연구

임현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나이는 문화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나이 들의 다른 표현인 노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노인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및 처우 등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정황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국 고대 노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권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별히 중국 고대 노인이 지닌 권위가 어떤 종교적 배경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상대와 주대의 갑골문과 금문을 포함하여 후대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2. 구장(鳩杖): 노인에게 전하는 황제의 권위 : 한대 왕장(王杖) 제도에 반영된 '노년' 이해

이연승 (서울대학교)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 주로 지식인 남성 노인이 지녔던 구장(鳩杖)을 황제나 국왕이 하사하는 왕장제도의 초기 형태와 거기에 투영된 노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단(杖端)에 비둘기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고 하여 구장이라고 불렀던 지팡이는 단지 기력이 약해진 노인의 보행 보조수단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구장은 보행을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불편하며, 장단의 조각은 손잡이가 아니라 장식이다. 물론 노화에 따른 근력의 쇠퇴로 인하여 지팡이가 필요하게 되며, 노인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음식물이나 의복 등의 하사품도 내려졌지만, 왕장(王杖)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내려지는 여타의 물품과는 달리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선택적으로 내려졌다. 이 글에서는 <왕장십간(王杖十簡)>, <王杖詔令冊> 등,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발견된 출토문헌 및 <<한서>>, <<후한서>> 등 기존의 역사서와 문헌들, 그리고 다양한 고고(考古) 유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왕이 하사하는 구장의 의의, 비둘기(鳩)를 새기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노년의 이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동아시아 기로 이야기의 변형: 노년 혐오요소를 중심으로

Sem Vermeersch (서울대학교)

기로설화(즉 노년을 공동체에서 배척하는 관습에 대한 이야기)는 동아시아에서 옛 부터 흔히 볼수 있다. 아마 대장경에서 실린 『잡보장경』중의 이야기에서 기원한다. 이런 이야기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뿌리내렸다. 기존연구는 주로 이 습관의 사실여부를 집중하였는데, 최근에 의지할 만한 연구가 기로이야기는 역사에서 존재한 현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기로 이야기가 왜 생겼고, 어떤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켰을까? 겉으로 보면, 기로 설화들 노인의 가치를 강조한다: 주인공이 기로하는 습관을 실시하면서 후회가 생긴 다음에, 노인의 지혜와 덕행을 깨닫게 된다. 다만 20세기에서 이런 이야기들 문학이나 영화에서 재현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부담만 부각되고, 결론적으로 이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 일본사회를 연구하는 자 이미 현대일본사회의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인문제로 설명하는 시도도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기로 이야기의 변형을 주목하여 종교적 배경에서 분리되면서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소극적인 양상이—즉 노인에 대한 혐오— 나타나게 시작했다고 논증한다.

4. '노화'와 '장생'을 바라보는 도교적 시선(視線)의 복합성과 그 함의

최수빈 (서강대학교)

오늘날 불로장생의 현대판 신화가 왕성하게 再記述되고 있다. 이브 헤롤드의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Beyond Human : How Cutting-Edge Science Is Extending Our Lives)』에서 말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한 장생이나 영화 <가타카>에서 보여주는 유전자 복제를 통한 불멸 등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로, 혹은 불사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을 보여준다. 인류역사상 불로장생의 신화와 技術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한 것은 도교이다. 그런데 도교문헌에 나타난 불로장생의 理想과 技術은 현대적 의미의 불로장생의학과는 달리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육체와 뇌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도교에서 말하는 노화, 그리고 불로는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함의를 가진다. 또한 장생 역시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나 건강한 신체와 기능의 보존이 아니라 오랜 求道와 養生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온전한 자기완성, 혹은 자기초월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완성과 자기초월은 진정한 삶의 기술인 양생은 타인, 사회, 자연, 우주와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본 발표는 우선 梁나라 도홍경의 『養性延命錄』이나 『無為清靜長生真人至真語錄』, 『重陽真人金關玉鎖訣』 등의 전진교 초기도사들의 문헌, 그리고 『鐘呂傳道集』(『修真十書』本)과 같은 후대 내단문헌 등을 중심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노화와 불로 개념이 가지는 복합적 특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불로장생의 기술과 과정으로서의 구도와 무위자연, 양생이 현대의 노년과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발표에서는 Erickson 등에 의해 제시된 '노년적 초월(gerotranscendence)'의 개념과 도교적 양생의 기술, 그리고 불로장생의 이상의 연관성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5. 노년의 몸과 유교적 성찰

임부연 (서울대학교)

사람의 늙음은 몸의 불가역적인 쇠퇴 현상을 통해 다가온다. 본 글에서는 조선의 유자(儒者)들이 노년에 겪는 백발(白髮)과 노안(老眼), 낙치(落齒)의 현상을 마주하여 낯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찰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왕도(王道) 정치에서 돌봄의 대상을 가리키던 백발은 공평하고 불가피한 몸의 노화로 인식되었고 효도와 충성, 의리 등 유교적 가치로 채색되었다. 대머리는 장수의 징표로 긍정되거나 문화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쾌한 유머로 접근되었다. 눈이 어두워지면 산수(山水)의 풍광(風光)을 즐기고, 안경의 도움으로 학문의 즐거움을 유지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본성에 다가가는 정좌(靜坐) 공부에 몰입하였다. 이빨이 썩고 빠지는 고통과 충격은 무치(無齒)의 좋은 점을 찾거나 만물의 변화 차원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성성(惺惺)한 도덕적 주체를 찾는 계기로 전환되었다. 유자들은 늙음을 탄식(歎老)하거나 망각(忘老)하지 않고 자연스런 삶의 과정으로 편안하게 여기는 '안로(安老)'의 길을 모범적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길은 소수의 유자에게만 열렸으니, 삶의 조건이 전혀 다른 오늘날에는 더욱 고원(高遠)하다. 노년의 몸을 세대간의 문제로 보고자 한다면 우선 늙음과 젊음, 노년과 청년의 대대(待對)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